

신발의 행방

고지연 시나리오 작가

그의 젊음기는 태어날 그 순간 뿐이었다

지금 하려는 이야기는 아주 오래 전에 살았던 한 남자와 그의 신발에 관한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옛날이야기'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 전. 얼마나 오래 됐나? 그게 궁금한 당신이라면 이 이야기는 듣지 않아도 좋다. 그렇게 오래 된 이야기를 어떻게 알고 있는나? 그게 궁금한 당신이라도 이 이야기 듣지 않는 게 좋겠다. 어차피 알 수 없을 테니까. 당신이 짐작도 못할 만큼 오래된 이야기이고, 내게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경로가 있다. 그리고 그 경로는 당연히 비밀이다. 머느리에게 고추장 만드는 비법도 안 알려주는 세상이다. 그러니 그냥 들어나 보시라.

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할 것 같으면, 구석기시대부터 철기시대까지 혹은 고조선시대부터 조선시대, 현대까지. 참으로 다양하고 그 시대마다의 고유성이라는 게 있기 마련이다. 마음에 가닿을 예로 밀렌도르프가 발견한 비너스와 보티첼리가 그린 비너스의 몸매의 차이를 떠올려 보라. 그러나 어느 시대에나 어리석은 자들은 있었다. 나르키소스란 젊은이가 잘생긴 자기 얼굴만 쳐다보다가 무슨 꽃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아주 유명하다. 그 청년은 그나마 꽃이라도 되었으니 풀은 난다고 할 수 있다. 아무튼 어리석은 이들에 관한 내용이라면 어떤 시대의 이야기라도 현재 진행의 의미가 있다. 지금 들려주려는 이 사람의 이야기도 그렇고.

그가 살았던 그 때엔 개념이라는 게 별로 없었다. 국가, 종교, 인종, 성별, 피곤하게 따질 만한 기준이란 게 별로 없었다는 소리다. 당연히 세상은 별 탈 없이 잘 굴러갔다. 부자는 있어도 가난한 자들은 없었다. 그야말로 태평한 시대였다. 그의 이름은, 그대, 대두라고 해주자. 물론 존이라고 해도 되고, 왕장찌이라고 해도 상관없다. 혹은 구텐탁이라고 해도 되고. 그러나 이곳은 21세기, 게다가 대한민국. 이야기의 현재 진행성을 위해서 알기 쉽게, 듣는 이들의 정서에 알맞게 이름을 짓는 것도 이야기꾼의 의무이고 동시에 즐거움이다.

대두는 어떤 마음씨 좋은 중년 부부의 늦둥이 아들로 태어났다. 그가 세상에 처음으로 머리를 들이밀 때, 그의 나이 많은 모친은 몇 번이나 혼잣말을 했다고 한다. 그렇게 워낙에 큰 머리를 가지고 세상에 나온 대두는 머리가 커서인지 어찌된 영문인지, 날 때부터 생각이 많고 더불어 궁금한 것도 많았다. 몇 년 전 나온 어떤 영화에 전라도 보성 벌교에서 태어난 갓난쟁이들은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육을 한다는 말이 나오더라마는 그런 그냥 웃기자고 하는 과장일 뿐이고. 이 대두라는 자는 정말로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질문을 던지며 나왔다고 한다. "여기는 어디고, 나는 누구인가?"라면서.

갓 태어난 아기가 말을 했으니 사람들이 놀라 나자빠졌음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그를 받은 산파는 아기를 떨어뜨리기까지 했다. 그런데도 대두의 머리는 흠집하나 나지 않고 멀쩡했다. 그러니 크기만한 게 아니라 단단하기까지 한 머리라는 걸 태어나자마자 증명할 셈이다. 놀라움이 사라지자, 부모들은 이 상스럽게 태어난 자식을 무척 자랑스러워했다. 마을 사람들도 대두가 좀 더 크면 훌륭한 스승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아 말했다. 대두는 키우는 데 손이 많이 가는 아이도 아니었다. 배가 고프면 "젖을 주세요."라고 말했고, 오줌이 마려우면 "마려워요."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아기였기 때문이다.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났다면 '세상에 이런 일이'이라는 프로그렘 정도가 아니라 방송 3사의 여덟 시와 아홉 시 뉴스, 5대 일간지, 나아가서는 미국과 영국의 주요일간지에 소개될 정도로 불가사의한 사건으로 다루어졌을 것이다. 그러나 그때는 아주 오래 전.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가도, 천리 밖에 마을 하나 찾기 힘들 정도로 온 세상이 여백의 미로 가득했던 시대였다.

대두는 무럭무럭 자랐고, 말도 점점 잘 하게 되었다. 무엇보다 사 용하는 단어의 수가 늘어나는 만큼 질문도 많아졌다. 처음엔 그야말

로 어린 아이다운 천진한 발상에서 나온 것들이었다. "아빠 배는 왜 불룩해?"라던가 "옆집 누나는 밤만 되면 어디로 가는 거야?"라는 정도도. 그 중에 답을 못할 질문은 거의 없었다. 교육상 답을 않고 은근 슬쩍 넘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었지만. 그러나 대두가 쑥쑥 크는 만큼 머리로 커졌고 그 속도에 비례하여 생각도 많아져서 점점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로 많은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양이 늘수록 질도 나아졌다. 하며는 딱히 또 그렇지는 않았다. 사람들이 무릎을 탁 치며 "아니, 이런 날카로운 질문을!"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의 과학도 머리 크기와 지능 지수의 관련성에 대해 이렇다 할 규명을 못해내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려 보라.

그럼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자란 대두의 이런 갈수록 심해지는 행태에 대해 주위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 처음엔 될 성 부른 떠안은 어떻게든 될 성 부르게 해야 한다는 의무감에, 성의가 대단했다. 자신이 못하는 대답이라면 이웃에 이웃까지 불러다 답을 찾아내 주었다. 그러나 결국 대두가 일곱 살도 되기 전에 이웃에 이웃, 그 이웃의 이웃까지 대두의 끝도 없는 질문에 질려

버리게 되고 말았다. 가장 먼저 지쳐 버린 것은 당연히 그의 부모였다. 부모의 사랑에는 불가능이 없다고 하지만, 사실은 안 되는 것도 있기 마련이다.

대두는 점차 말을 잃어갔다. 세상에 대답 없는 당신들뿐이었다. 부모의 근심은 늘었고, 차라리 그가 평범한 아이로 자랐으면 싶었다. 그러나 부모의 희망 상황이 이루어지기란 그때나 지금이나 힘들긴 마찬가지였다. 그가 열 살 때다.

"대두야, 오늘은 발에 씨를 뿌리는 날이니 함께 나가자꾸나."

세월이 흘러 좀 더 불룩해진 배를 힘겹게 접으며 신발을 신던 대두의 아버지가 큰맘을 먹고 아들에게 말했다.

"왜 하필 오늘, 발에 씨를 뿌리나?"

"신발을 신느라 얼굴이 벌개진 아버지가 대답했다.

"오늘이 가장 씨 뿌리기 좋은 날이기 때문이지."

"가장 씨 뿌리기 좋다는 날은 어떤 것인가?"

아버지가 신발을 신는 걸 보면서 방 안에서 전혀 나갈 생각이 없어 보이는 대두가 또 물었다.

"온도와 습도가 적당하고, 이렇게 날씨가 화창하면서도 덥지 않

아 일하기 좋은 날이지. 그러니 너도 열려 나와 신발을 신도록 해라."

그는 슬슬 대두의 질문 공세가 또 시작되나 싶어 일부러 명령형 종결 어미를 사용해 말을 끝맺었다. 그러나,

"아버지, 그런데 애초에 씨앗의 씨앗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라고 대두가 또 질문을 던지지 않겠는가. 자, 생각해 보라. 이제 발에 씨를 뿌릴 농부가 이 씨의 씨는 어디서부터 나왔으며 그 씨의 씨는 어디서부터... 라고 거슬러 올라가다 정작 씨앗은 언제 뿌릴 수 있겠나. 아버지는 말없이 고개만 저를 뿐이었다. 그리고 잠시 후, 집을 나서서 그의 얼굴에 햇빛에 비친 무엇인가 반짝했다. 그것이 눈물인지, 아니면 신발을 신느라 멧혔던 땀방울인지는 알 수 없었다. 다른 건 다 궁금한 대두도 그런 궁금해 하지 않았고.

시간은 흘러갔다. 그때나 지금이나 불잡는 이가 있어도 없어도 무심하게 알아서 흘러가는 게 강물과 세월이다. 대두도 어느덧 스무살의 청년이 되었다. 노동이라고는 질문을 던지는 것과 생각 말고는 하는 게 없는 그의 피부는 모공 하나 보이지 않는 도자기 같았고, 원래도 깊었던 눈빛은 자신을 이해해 주는 이 없는 고독 속에서 우수



삽화 · 김홍인